권두언

구약논집 제6집을 발간하며

권 혁 승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회장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의 논문집『구약논집』제 6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은 네 편의 지혜 및 시가 관련 논문(김진섭, 구자용, 김정원, 김희석)과 한 편의 창세기 관련 논문(김영호), 그리고 다른 한 편의 사사기 관련 논문(박유미) 모두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 다수의 지혜서와 관련된 논문이 게제된 것은 지난 12월 11일(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제16차 복음주의 구약신학회 논문발표회 주제가 '구약 지혜사상의 현대적 의의' 였기 때문입니다. 특정 주제를 정하고 모인 지난 논문발표회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발제와 함께 유익한 토의가 진행되었던 뜻 깊은 모임이었습니다. 그 때 발표하였던 논문과 개별적으로 투고한 논문을 한 권의 논문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록된 논문들은 모두 복음주의 신앙에 바탕을 둔 구약학자들의 신앙고백과 진지한 연구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거둔 결과들입니다.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자영 박사의 연구논문은 지혜의 양면인 이상성과 현실적응성을 부각시킴으로 긴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희석 박사의 연구논문은 잠언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의 정체성이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여호와 경외' 의 의인화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경외의 삶이 잠언 해석뿐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 자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함의를 던져줍니다.

김정원 박사의 연구논문은 아랍의 문학형식인 와스프 구조를 아가서 해석에 적용하여 여인의 아름다운 몸 묘사가 외설적 표현이 아니라 흠이 없는 여인의 묘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가서를 문자적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우화적 성경해석을 극복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영호 박사의 연구논문은 인물병행구조분석을 통하여 옥에서의 요셉은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남용이라는 실패를 경험함으로 더욱 온전한 인물로 성장하는 상화의 과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유미 박사의 연구논문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사사기 17-18장에 나오는 극적 아이러니를 드러내주었습니다. 곧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불일치하는 지를 보여주는 극적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이며, 그것은 또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라고 지적합니다.

제16회 복음주의 구약신학회 논문발표회의 주제연설이기도 한 김진섭

박사의 연구논문은 관련 본문들의 분석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는 지혜로운 장인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은 소우주인 성막건축에도 장인들의 은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활동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구약신학회의 연구노력은 우리들만의 담장을 넘어 한국교회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주의 구약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신학은 전체를 빠짐없이 보겠다는 진지한 노력이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논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시 진술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런 신학의 중요성이 교회 현장에서 자주 외면당하거나 무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학자들이 신학의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문성에만 치우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신학의 현장성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에서는 차기 정기논문발표회를 「구약과 목회와의 대화: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2011년 6월 2일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현장목회자들과 함께 갖기로 하였습니다. 두 편의 주제발표와 네 편(오경,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의 주제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이 한국교회의 신학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논문을 보내주신 분들과 구약논집 6집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실무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집 발간을 위해 후원해주신 후원교회 담임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